

민은기의 클래식 비망록

삶 파괴한 대신 명곡을 낳다 무소르그스키의 알코올 중독

민은기
서울대 음악학과 교수



19세기 러시아 제국의 작곡가

귀족 가문 전통파라 사관학교 입학
신에 발라키레프 만나 작곡가 전향

‘러시아 5인조’ 작곡 동인으로 인기
농노 해방 가세 기울며 알코올 중독

오페라 ‘보리스 고두노프’ 대성공
중독 심해져 병원에서 42세로 사망

어릴 적 집에 세계 문화 전집이 있었다. 텔레비전조차 귀하고 OTT는 아예 없던 시절이라 그랬을까, 주인공 이름들도 생소하고 줄거리도 낯설었지만 다른 나라 이야기가 그렇게 재미있을 수가 없었다. 전집에는 유난히 러시아 작품들이 많았고 러시아 소설 속 인물들의 인생은 하나같이 암울하고 기구했다. 소설을 읽고 난 후 마음이 무거워졌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하기가 잔인했던 농노제와 전제군주, 그리고 볼셰비키 혁명으로 이어지는 격변의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삶이 어찌 평탄할 수 있었을까. 같은 시대를 살았던 러시아 음악가 무소르그스키의 삶도 어느 소설 속 주인공 못지않게 파란만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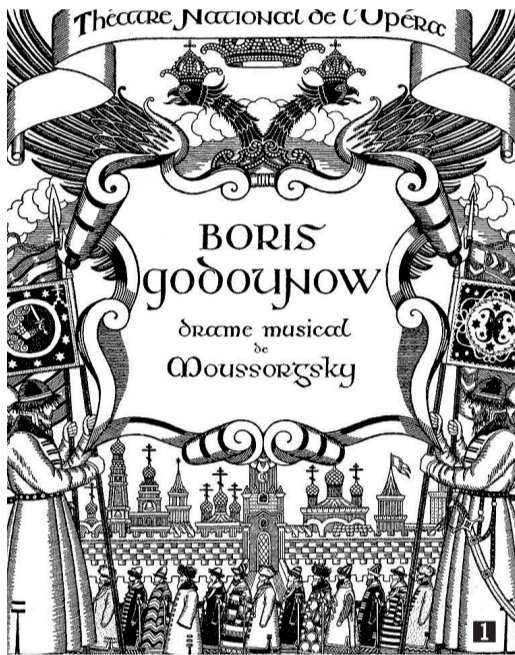
제복입고 피아노 치면 숙녀들 까무러쳐

그의 시작은 유복했다. 모데스트 무소르그스키는 광활한 토지를 소유한 귀족 가문에서 태어났다. 피아노 실력이 좋았던 어머니에게서 여섯 살 때 처음 피아노를 배웠는데 3년 만에 어려운 리스트의 곡들을 연주해 낼 정도로 피아노에 뛰어난 재능을 보였다. 부모도 그의 음악교육에 적극적이어서 열 살부터는 전문가에게 피아노 레슨을 받게 했고 열두 살에는 무소르그스키의 피아노 자작곡을 출판해 주었다. 하지만 그의 부모에게 있어 음악은 교양이나 취미를 위한 것이었을 뿐, 13살이 된 무소르그스키는 가문의 전통에 따라 샤프테데르부르크의 사관학교에 입학했다.

졸업 후 샤프테데르부르크의 군 병원에 부임한 젊은 장교 무소르그스키는 품위 있고 귀족적인 매너를 갖춘 모범 군인이었다. 머리에 기름을 발라서 단정하게 넘긴 그가 제복을 반듯하게 차려입고 새하얀 손으로 우아하게 피아노를 연주하면 주변의 숙녀들이 모두 까무러칠 정도로 난리가 났다고 전해진다. 하지만 장교 무소르그스키의 관심은 온통 음악뿐이었고 의대를 졸업하고 같은 병원에서 근무하던 알렉산더 보로딘을 만난 후 그의 음악적 열정은 더 뜨겁게 타올랐다. 보로딘 역시 무소르그스키만큼 음악에 심취해있었기 때문이다. 자연스레 그들은 동지가 되었고 그들의 발걸음은 늘 음악계 주변을 맴돌았다.

이 시기 특히 그의 관심을 끈 음악가는 젊은 신예 밀리 발라키레프였다. 그는 무소르그스키보다 두 살밖에 많지 않았지만 20살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번뜩이는 지성과 예리한 판단력을 갖추고 있었다. 게다가 러시아 최초의 세계적인 작곡가 미하일 글린카의 지도를 받기도 했다. 글린카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배움의 기간은 길지 않았으나 러시아 음악에 대한 확고한 민족적 신념을 이어받기에는 충분했다. 무소르그스키는 발라키레프가 주장하는 러시아 민족주의에 감화되어 그에게 작곡을 배우기에 이른다.

문제는 발라키레프 자신도 화성법과 대위법과 같은 서양음악의 기초 이론을 체계적으로 배워본 적이 없었다는 것. 하지만 그는 러시아가 서유럽의 영향에서 벗어나려면 러시아만의 길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고 무소르그스키에게 기초를 쌓기보다는 직접 작곡을 하라고 가르쳤다. 이는 당시 러시아 문화계를 뜨겁게 달군 민족주의의 영향이기도 했다. 과거 자국의 언어를 천시할 정도로 서유럽의 문화에 경도되었던 러시아였으나, ‘러시아 근대 문화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푸시킨의 등장 이후 투르게네프-



1 오페라 ‘보리스 고두노프’ 포스터. 2 무소르그스키의 절친 빅토르 하트만. [사진 사회평론]

톨스토이·도스토옙스키 같은 대문호들이 나와 러시아 문화의 황금기를 이끌고 있었다.

발라키레프식 교육은 다소 피상적이고 개별적이기는 했으나 출중한 피아노 실력과 남다른 음악적 감각 덕분에 그의 주위에는 무소르그스키 외에도 보로딘을 비롯하여 립스키코르사코프와 세자르 쿨 같은 젊은이들이 모여들었다. 이들은 함께 모여 다

른 작곡가들의 작품을 연주하며 그들의 작곡기법을 분석하고 비평하기를 즐겼다. 모차르트와 멘델스존 같은 전통적인 작곡가들은 신랄하게 비판했고, 리스트와 베를리오즈 같은 진보적인 작곡가들에게는 열광했으며, 쇼팽과 글린카처럼 자기만의 독창적인 양식을 개발한 작곡가들은 숭배했다.

아마추어 음악가이면서도 젊은이다운 호기로 음악적 열정을 불태우던 이들을 두고 비평가 블라디미르 스타소프는 “강력한 소수”라고 불렀다. “러시아 5인조”라고 알려지게 되는 작곡 동인은 이렇게 출발했다.

무소르그스키는 발라키레프와 공부를 시작하자마자 본격적으로 음악가의 길을 가겠다고 군대를 나와 버린다. 그리고 열정적으로 작곡을 시작하지만, 바로 이때부터 그에게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정신적 문제가 나타났다. 설상가상으로 이듬해인 1861년에 실시된 농노 해방은 무소르그스키를 하루아침에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뜨렸다. 농노제도의 폐지로 인해 무소르그스키 가문은 토지의 반 이상을 잃어버렸고 사업의 기반도 없어지고 말았다. 무소르그스키도 생계를 위해 낮은 직급의 공무원으로나마 취업할 수밖에 없었다. 처음에는 직장에서 보지도 말고 승진도 했었으나 잦은 결근 때문에 결국 무급 대기자로 발령이 나고 말았다. 음악을 좋아하는 그의 상관이 해고만은 막아주어 간신히 버티고는 있었지만, 고용은 늘 위태로웠다. 몇 년 후 어머니가 사망하자 그는 완전히 무너졌고 알코올 중독에 빠져 동생 집에 얹혀 살아가는 처지가 되고 말았다.

이렇게 심신이 망가지고 있던 상황인데도 무소르그스키가 음악에 대한 열정을 잃지 않았다는 점이 놀랍다. 오히려 이때 그는 발라키레프의 영향에서 벗어나 비로소 자신의 음악을 만드는 것에 몰두한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가장 러시아적인 오페

라이자 19세기 최고의 오페라 중 하나로 꼽히는 ‘보리스 고두노프’이다. 푸시킨이 쓴 동명의 희곡을 바탕으로 한 이 작품은 16세기 말 러시아 제국의 유력한 왕위 계승자였던 황태자 드미트리르의 사망을 두고 벌어졌던 역사적 사건을 다룬다.

절친 화가의 죽음 ‘전람회 그림’에 담아
‘보리스 고두노프’에서 주인공들은 어느 서양의 오페라들처럼 서정적인 아리아를 부르지 않는다. 대신 러시아어 특유의 리듬과 여조를 따르는 좁은 음악의 선율로 노래한다. 화성도 특이해서 무순조인지 알 수 없는 화음들로 가득하다. 작품이 독특했던 만큼 무대에 올리는 것 자체가 결코 쉽지 않았다. 무엇보다 프리마 돈나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 오페라의 성패는 극적 긴장감과 음악적 완성도가 결정하지만, 공연의 속성상 대중들에게 인기가 있는 여주인공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이 작품에는 여주인공 배역 자체가 없다. 결국 립스키코르사코프가 나서서 극장 측을 설득하고 무소르그스키도 작품에 약간의 수정을 한 후에야 간신히 무대에 올릴 수 있었다. 그렇게 어렵게 성사된 초연은 의외로 12회 연속 공연이라는 기대 이상의 성적을 거두었다.

이 성공을 계기로 무소르그스키가 정상적인 삶으로 복귀할 수 있었으면 좋았으련만, 현실은 그러한 기대를 외면한다. 그의 알코올 중독은 심해져만 갔고, 특히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곤 했다. 결국 “강력한 소수”를 외치던 그의 동료들이 하나씩 결을 떠났고, 러시아 5인조도 와해되었다. 더 큰 충격은 절친이었던 화가 빅토르 하트만이 39살의 나이에 동맥류 파열로 갑자기 세상을 떠난 것이었다. 이때 받은 충격과 슬픔은 아름다운 음악으로 승화되어 세상에 나오게 된다. 죽음을 기리는 추모전에서 자신에게 영감을 준 그림 10점을 골라 음악으로 옮긴 피

아노곡 ‘전람회의 그림’이다.

대부분의 시간 동안 술에 찌들어 있었으나 그의 특출난 재능을 아까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 그는 문화계 및 학계의 저명한 인사들과 어울리며 외롭지 않게 지냈다. 기록권에 저항하는 예술가들이 술에 취해 사는 것을 당연시하거나 미화하는 러시아의 사회적 풍조가 한몫 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알코올 중독은 더욱 심해져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지경에 이르게 되었고, 1880년 마침내 직장에서도 해고를 당했다. 결국 병원에 입원한 그는 채 두 달을 남기지 못하고 사망했다.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 무소르그스키가 세상을 떠나기 며칠 전 러시아 사실주의 회화의 거장 일리아 레핀이 병원을 찾아 그의 마지막 모습을 화폭에 담는다. 마지막 모습에서 그는 형용사치 머리에 실내복을 대충 걸치고 있고 알코올 중독으로 코가 빨갛지만 눈만큼은 뜨거운 열기로 불타고 있다.

재능 많고 열정적이었던 한 음악가의 인생이 술 때문에 이토록 철저히 파괴되다니 안타깝기 그지 없다. 그가 술에 중독되지 않았다면 아름답고 독창적인 음악이 이 세상에 더 많이 나오지 않았을까. 하지만 어쩌랴. 러시아를 휩쓴 혁명의 광기와 가난을 맨 정신으로 견디기에는 그의 감성이 너무도 예술적이고 예민했으니.
(광주일보와 중앙SUNDAY 제휴 기사입니다)

민은기 서울대학교에서 음악이론을 전공하고 파리 소르본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후 1995년부터 서울대 음악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음악과 페미니즘’ ‘독재자와 음악’ ‘대중음악의 역사’ 등을 주제로 여러 권의 저서를 출판했으며 최근에는 ?난생 처음 한번 들어보는 클래식 수업? 시리즈를 집필 중이다.

건물·주택 지붕공사, 스틸방수, 리모델링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갈라강관 지붕공사



건물 리모델링



전원주택신축

공장신축



옥상스틸방수



주택 (외, 내부) 리모델링



정크판넬시공

창호(샷시)교체

MODERN **모던건설**

사무실 광주시 북구 자미로45(신안동)
공 장 광주시 서구 서항2길3(서항동)

시공문의 전상하 T. 062)531-3530, H. 010-9229-3530